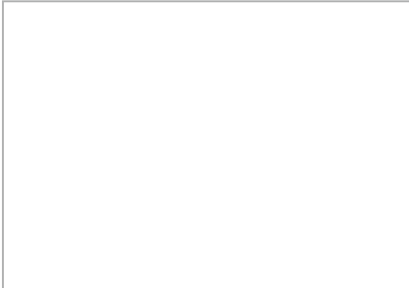


기사입력: 11.10.09 14:44

[인쇄하기](#)

### [생활 속에서] '개독교'에서 '고독교'로



신약성서의 편지글인 고린도전서(이하 고전)를 읽어보면 오늘날 교회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세기 교회의 모습이 21세기 모습과 비슷하다면 적용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세기 고린도(Corinthian)는 항구도시로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사이의 좁은 지협에 있었는데 많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라 범세계적인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올림픽 경기와 비슷한 이스미안 경기가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공연을 위한 옥외극장은 2만 명을 채울 수 있을 정도였으니 문화적으로 발달되어 있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향락문화도 고도로 발달했지요. 이 고린도에 있던 교회 사도 바울이 돌봤던 이 교회는 예수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하면서 분열과 분파로 가득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이웃과 협력을 하지 않는 문제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와 자유를 말하는 사람인데 고전에서는 온갖 규칙을 설명하고 질서를 강조합니다. 고전을 읽다 보니 마치 사도 바울이 21세기 교회를 향해 말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전에서 "이웃과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개독교(기독교를 폄하하는 은어)'라고 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안티 기독교(반기독교) 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쩌면 이러한 비난의 화살이 기독교에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지적을 받다 보면 잘못을 알게 되고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적하는 것은 그만큼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그들의 지적을 받아들이며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개선하고 개혁을 해야 합니다. 고전 11장 32절은 위로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비평이 있어야 좋은 작품이 나오듯 강한 비난을 통해 기독교가 좀 더 견고한 종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너무나 성장 위주의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속력을 줄이고 견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전 11장 33절의 내용처럼 형제를 기다려줘야겠습니다. 분쟁도 줄여야겠습니다. 파당도 없애야겠습니다. 노력을 하다보면 미래에는 '개독교'에서 '고독교(고귀한 기독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할 수"(고전 11:26) 있게 될 것입니다.